

제 9 장

말씀에 대한 그리스도의 증거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라
눅 24 : 27 - 27, 44 - 45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며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스도의 태도와 증언이 가장 결정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정통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사랑하셨습니다. 거룩한 구약 성경에 대한 정통 유대인들의 헌신과 경건한 사랑은 아주 감동적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유대인들의 열심

이스라엘의 현대 정부를 창출시킨 결과를 낳게 했던 1948년의 전쟁이 끝난 직후에 저는 예루살렘에 갔었습니다. 이스라엘 공화국 사

람들은 얼마 전에 시온 산을 점령했는데, 그 산 꼭대기에는 전통적인 다윗 왕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무덤을 회당으로 개조했고, 거기에는 예배드리는 사람들, 특히 정통 랍비들로 가득 찼습니다. 토라, 즉 모세의 율법을 낭독한 후에, 그들은 그 두루마리에 적힌 글에다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은 두루마리 끈에다 입을 맞추고, 그 두루마리를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넣어두는 가족에다도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름답고 경건하게 그 두루마리를 법궤 속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랍비들의 구약 성경에 대한 아름답고 경건한 애정을 보고 있자니, 랍비들 중의 하나였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요 4:22)는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애와 헌신의 마음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태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성경은 구약성경 - 책 중의 책이요, 말씀 중의 말씀인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주님이 성경에 대해 가지셨던 애정은 우리가 그 같은 책, 그 같은 말씀에 대해 우리 마음 속에 간직한 애정과 같은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반적으로 5년 쯤 지나면 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좋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그의 설득과 확신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 교회는 37년간 제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고도 존경하는 사랑과 경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넓은 그리스도교 세계 속에서, 특히 학문적인 모임에서 발표되는 것을 살펴보면, 아주 독특하고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학문적이고 신학적인 세계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을 받은 무오한 것이라는 점에 깊은 회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일반적인 신학적 모임을 염두에 두고 성경에 대한 주님의 태도와 마음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들은 성경을 회의적인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바라보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취급하셨던 방식을 따라서 보아야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애정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주의적이고, 학문적이며, 신학적인 집단에게 있어서는 아담과 하와는 신화 속의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실제 인물들이 아니고 실제 에덴 동산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다윈의 설득을 따르며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진화론을 지지합니다. 그들은 우리 인류는 원시 대기에서 발생한 것이고 우리 조상들은 침팬지나 오랑우탄(Orangutan)이나 원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신학적인 설득의 근거에 반대해서, 주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9장에서 가정과 결혼과 가족의 기초를 아담과 하와에게 두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그리고 하와를 위해서 아담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함을 받았으며, 그의 뼈중의 뼈와 살중의 살이었읍니다. 가정과 결혼의 안정은 하나님의 원래 목적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대한 주님의 태도입니다.

전체 자유주의적인 학자들 사이에서, 신명기는 진정성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회의주의자들은 모세가 신명기를 썼다고 추정되는 때보다 천 년이 지난 요시야 왕 시대의 유다 왕국의 입장에서 꾸며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신명기를 모세의 말로서 인용하셨으며, 성경의 다른 어떤 책보다도 신명기에서 더 많이 인용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자유주의 신학자치고 다니엘서의 진정성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한 신학자들에게는 다니엘서는 위조문서이며, 지금까지 추정되어 온 것처럼 주전 600년에 쓰여진 것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도 주전 165년이라는 연대를 제시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니엘서의 놀라운 예언들은 실제로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인데 단지 그것이 마치 예언인 것처럼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입장의 사람들은, 예외없이 다니엘서가 꾸민 것이며, 진정성이 없는 위조문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자신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다니엘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선지자이자 정치가였고 그에게 하나님은 역사의 종말과 파국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 요나가 큰 물고기에게 삼키운 적이 있다는 생각을 조롱하며 비웃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그들에게는 연약하고 사춘기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서 보듯이, 당신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위대한 사실을 요나가 큰 물고기 뱃 속에서 풀려난 것으로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은 제가 서남 침례신학교 학장이신 리 스카버러 (Lee Sacrborough) 씨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달라스에 있는 제일침례교회의 집회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는 신학교 학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가 요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어린 아들이 하루는 주일학교에서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와 그것을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빠, 오늘 아침 저는 주일학교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스카버러 박사가 질문합니다. “그래, 그게 뭐니?” 그 아들이 대답합니다. “네, 요나라는 사람이 큰 물고기에 먹혔는데요, 그 고기 뱃 속에서 삼 일을 살고는 산 채로 고기가 토해낸 얘기에요. 저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때 스카버러 박사는 자기의 어린 아들을 곁에 불러다가 말했답니다. “얘야, 내 서재로 오너라. 그리고 함께 앉아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하자. 나도 그 요나 이야기로 골치를 썩었던단다.”

그들은 함께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대한 설교자는 자기의 작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내게 무엇이 너의 골치거리인지 말해보렴?” 그 아들은 말합니다. “아빠, 저는 단지 큰 물고기가 사람을 삼킬 수 있다는 점과 그 사람이 고기 뱃 속에서 삼일 동안 살 수 있다는 점과 산채로 다시 토해낸다는 점을 믿을 수 없을 뿐이에요.” 그 위대한 설교자가 말했습니다. “얘야, 나도 그 이야기로 골

치를 썬었지만, 내 문제는 네 것하고는 조금 달랐다.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며 물고기를 만드실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만드시고 큰 고기를 만드시는지를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 분께서 어떻게 그 둘을 함께 다루셨는지 이해하는 것은 쉬울 것인데 말이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의 기적이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편견이 없는 마음으로 살펴보고 마음먹고, 주변을 보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일—기적이거나 초자연적인, 설명될 수 없는 일들에 당신의 이름을 표시해 놓으신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것도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관찰하고 놀랄 뿐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위대하신 창조주 앞에 꿇어 경배하며 그 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요드, 히브리어 자음 중 제일 작은 글자) 일 획(베트, 히브리어 자음 중 요드를 약간 크게 해서 만든 글자)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마 5:18).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이 하늘과 이 땅은 없어지거나, 분해되거나, 꺼지지 않는 불로 타서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경 사용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주님의 자세와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손에 성경을 들고 설교하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께서는 당신이 성장하신 마을, 나사렛에서 메시아직을 선포하셨을 때에, 당신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역시 관습대로 주님의 손에 두루마리 성경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으로부터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설교자로 모시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경험이었겠습니까! 예수

님은 두루마리를 펴셔서 이사야 61:1-2을 읽으시고, 그 손에 성경을 들고서 사람들에게 설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에 나오는 예들을 가지고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두루마리에서 이사야를 읽으신 후에,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치유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를 성경에서 뽑으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그는 시돈 땅에 사는 과부 사렙다에게로, 이방인에게로, 이교도에게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눅 4:26을 보십시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한 문둥이가 고침을 받았는데, 나아만이라고 하는 수리아인, 즉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눅 4:27).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솔로몬의 지혜에 놀랐던 시바 여왕에 대해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마 12:42).

요한복음 3:14-15에서는, 주님께서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아름다운 이야기를 사용하시면서, 누구든지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은 바라보고 살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이 야말로 높이 들려서 누구든지 바라보는 사람은 살 수 있게 되는 사람의 아들(人子)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바라보고 살라고 하는 것만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방법은 응답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단순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하늘에서 내려오신 만나로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분으로 설명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요 6:49-50).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경고를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광야의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그

리고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는데, 이 도시들은 모두 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주님은 노아의 이야기와 홍수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롯과 광야의 도시들이 불로 멸망당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성경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성경을 사단의 공격과 자기에게 집요하게 증오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성전의 지도자들에 대항하기 위한 무기로도 사용하셨습니다. 가령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주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은 포도원 주인이 자기가 받아야 할 소작료를 받게하려고 자기 하인들을 보낸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사악한 농부들은 하인들을 때리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 때, 그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아들을 공경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아들도 죽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10절에서 성경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 함을 읽어 보지도 못하였느냐”(이때 시편 118:32를 인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18 서두에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일곱 남편을 가졌던 한 여인에 관한 오래된 이야기를 예수께 말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남편이 부활 시에 그 여인을 차지하겠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백 오십년 동안이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주님은 출애굽기 3:6을 인용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막 12:26). 주님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가르침을 출애굽기 3:6에 있는 동사의 시제에 근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

과 이삭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고,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주님이 보시는 데 살아 있기라도 한 것처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2:28을 읽어보면, 어떤 서기관이 주님께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하시고는 주님은 신명기 6:5을 인용하십니다) 둘째는 이것이니(하시고는 레위기 19:18을 인용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35을 시작하시면서, 주님을 혹독하게 반대하던 지도자들에게 당신 자신이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여기서 주님은 시편 110:1을 인용하십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것이 예수께서 성경을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밤낮으로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이 잠겨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언제나 그의 손에, 언제나 그의 마음 속에, 언제나 그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는 강가에 심은 나무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확증

우리 주 예수의 사역과 메시지에 대한 확실한 보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확증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예언들을 성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누가복음 24장에서, 주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

세의 율법(토라)과 선지자의 글(느비임)과 시편(케투빔)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 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눅 24:44-45). 우리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시라는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확증해 주는 위대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증거인 것입니다.

그 말씀 또는 그 사실이 야기한 놀라움과 경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분은 그들 앞에 서 계십니다. 그 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 나셨습니다. 그 분의 적대자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고, 죽였으며, 살해해서 묻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삼일 후에 그 분은 그들 앞에 살아서 서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메시지의 진실에 대한 이보다 더 큰 확증이 세상에 있단 말입니까? 주님이 그들 앞에서, 그 곳에서 계실 때, 어떤 큰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 기적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메시지의 진실성을 확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생애는 너무나 놀랍고 그 분의 행동은 너무나 훌륭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런 일을 보지 못하였었다고 감탄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들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행적과 같은 것은 결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또는 주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는 “그와같이 말하는 자가 없었다”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정말입니다. 인류의 모든 문학 중의 어느 것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닌 뜻의 깊이에 대한 놀라움에 접근해 보려고 시도하는 작품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세상에서 행하신 사역과 메시지를 진실한 것으로 확증하고, 실증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당신의 훌륭한 가르침이나 당신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주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즉, 그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주후 70년경에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의 목회자였던, 순교자 저스-

틴(Just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오래 전에 그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위대한 프랑스의 과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파스칼(Pascal)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장 위대한 증거들은 예언들이다. 왜냐하면 그 예언들을 성취시킨 사건은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결말에 이르기까지 하나 하나가 예언에 있었던 기적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 분이 그들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역에 대한 진정한 확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한 것을 예수께서는 성취하신 것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교 그것도 유대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그 점에서 독특한 것입니다. 예언을 담고 있는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예언이 담긴 다른 종교 경전도 없습니다. 불교의 고타마도, 힌두교의 크리슈나도, 선지자 무하마드도 감히 미래를 예언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언을 하려고 했다면, 그들은 사기꾼이며 허풍장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나오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이야기 했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인 수천년 전에 그것을 이야기하였으며, 그것도 마치 자기들이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그곳에 있기라도 한 것 처럼, 또는 십자가 밑에 서 있기라도 한 것처럼 자세하게 세밀한 것까지 묘사한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러한 예언이라고 하는 기적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한 시대에 주 예수님과 같은 한 분이 오신다는 것을 누군가 이야기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적이 될텐데, 여기의 선지자들은 수도 많았지만, 수백 년씩 서로 떨어져 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 천년 후에 오실 분에 대해서, 혹은 750년 후에, 혹은 500년 후에 오실 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리고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그 분을 거기 서서 바라보고 있는 듯이 자세하게 묘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주님을 눈으로 보았더라도 예수님을 더 잘 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오실 그 분에 대해 했던 예언들과 예상들이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시몬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예언들을 기록했던 선지자들이 그 예언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예언들을 쏟아붓듯이 많이 했던 늙은 랍비들도 그 예언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침례 요한도 그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 예수께 그리스도가 한 분인지 그 이상인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는 “당신께서 오실 바로 그 분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들이 오셔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 예언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것을 묘사한 대목은 겉으로는 모순되게 보였습니다. 어느 때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분은 정복자로 오실 것이다! 예수는 왕이시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에는, “그 분은 낮고 순하시며 멸시를 받으신다. 나귀의 새끼를 타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그 분은 위대한 왕이시다! 장차 오실 왕이시다!”라는 예언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분은 마른 땅에서 뿔뿔이 찢어질 것 같은 멸시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서 쏘아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병고를 아는 자라.” 그리고 다시 거의 동시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는 열국의 소망이시며, 이 위대한 오실 분은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이 되시리라.” 그런데 사실은 그의 손과 발은 못에 찔렸고 그는 죄인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렸으며 땅 속에 묻혔습니다. 그 예언들을 쓴 사람

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았던 천사들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사도들도, 침례 요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위대한 보장은 말씀이며,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하나님만이 예언들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그 분이 그리고 그 분만이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예언들이 예수에게서 성취되었다는 선언에 대해서 세 가지 반대를 이야기 할 것입니다:

(1) 구약성경의 예언들을 읽었던 제자들이 예수의 생애를 그 예언들에 맞게 꾸며나간 것이다.

그러나 그 예언들은 대부분 예수를 미워하고 그 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의 적대자들에 의해서 성취된 것이지 그 분의 제자들이나 친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2)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 모든 일들은 그 분의 친구들에 의해서 문서로 기록되었다.

예수께서 사시던 때에는, 구약성경이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수백 년 전인 에스라 시대 이후로 성경은 결정되고 완성된 책이었으며, 훼손이나 거짓된 문서 변경이 있었다면 즉시 수천 명의 랍비들에 의해서 발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문헌들을 변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3) 그 모든 예언들은 누군가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이다.

그게 누구입니까? 이 예언들이 시이저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천만에 말씀입니다! 샤를마뉴 대제입니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나폴레옹?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처칠? 아닙니다! 오직 한 분만이 계십니다. 그 분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교사요, 전능의 왕이요, 영원하신 아버지며 평화의 왕이십니다! 모든 예언에 나타난 모

든 말씀들이 그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분은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성스러운 증거를 가지고 그 분은 당신의 하나님으로서의 소식과 사역의 증거를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백한 증거와 확고한 증인들을 통해서 주님을 거절하는 것은 잘못이며 죄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그 분을 수 천 가지 이유를 들어서 계속 거부하신다면, 그것은 변명할 수도, 용서 받을 수도 없는 죄인 것입니다. 주께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우리의 왕, 우리의 주로 나타내시려고 하실 수 있었던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요 3:18). 요한은 이 위대한 요한복음 3장을 다음과 같은 결론적인 증언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 예수의 발 아래로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끄시기 위해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성령의 증거를 따라 그 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분은 모든 예언의 완성이십니다! 그 분은 구세주이십니다! 그 분은 모든 피조물의 왕이십니다. 그 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분은 우리의 소망이며, 평화와 생명과 부활과 하늘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되십니다! 그 분은 모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 책은 우리에게 예수를 가리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